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중심으로-

김경애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Hoi-Bing-Hwan and Time Rewind Narrative -focusing on the web novel 『Marry My Husband』-

Kyung-Ae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이 글에서는 회빙환이 본질적으로 '후회', '자조(自照)', '반성' 같은 '돌이킴'의 정동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 보겠다는 '재건', '자조(自助)' 등 '개선'의 욕망을 함축한 시간적 속성을 지닌 스토리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국 웹소설에서는 회빙환이 일종의 '장르'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의 마스터 플롯이 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스토리 유형이 아니라 모티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중심으로 회빙환 중 하나인 회귀의 시간 플롯이 소위 '현실로맨스' 장르에 적용되어 작품을 새롭게 한 요인이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웹소설에서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이 지닌 의미를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회빙환은 독자들의 대리만족과 욕망을 반영하는 양식이다. 둘째, 회빙환은 독자들의 쉽고 빠른 몰입을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토리 유형이자 현대에는 마스터 플롯이 돼가는 양식이다. 셋째, 회빙환은 현대 한국인의 정신적 정황과 시대적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하는 양식이다. 회빙환은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아직까지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고 있는 진행형의 스토리 모형이다.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변모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t was noted that Hoi-Bing-Hwan is essentially a story model with the affects not only 'restore' such as 'regret', 'a self-deprecating' and 'reflection', but 'improvement' such as 'rebuilding' and 'self-help' to live like this if time can be turned back. In Korean web novels, Hoi-Bing-Hwan tends to become a master plot to the extent that it is regarded as a unique 'genre'. This point was not well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because Hoi-Bing-Hwan was considered a motif, not a story model. In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 time plot of regression that focused on 『Marry My Husband』, was applied to the so-called 'real romance' genre and became a factor that renewed the work.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Hoi-Bing-Hwan story in Korean web novels was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Hoi-Bing-Hwan is a story model that reflects the surrogate satisfaction and desire of readers. Second, Hoi Bing-Hwan is a mobile-optimized story model that enables easy, quick immersion by readers and a style model that is becoming a master plot in modern times. Third, Hoi-Bing-Hwan is a story model that serves as an outlet for the mental conundrums and desires of modern Koreans. Hoi-Bing-Hwan is not a stereotype but a progressive story model that creates new works. Therefore, its transformation should be carefully watched and not viewed too negatively.

Keywords : Time Plot, Story Model, Master Plot, Return-to-the-Past, Reincarn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Ae Kim(Mokwon Univ.)

email: minerbakorea@mokwon.ac.kr

Received December 1, 2023

Revised January 4, 2024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서사는 인류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근간으로 허구에서 시간이 어떤 형태로 서술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한다[1]. 허구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과 달리,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인공적인 시간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시간은 균질하지만, 허구의 시간은 중심되는 것은 길고 자세히 서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짧게 줄이거나 삭제해 버리는 균질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라르 주네뜨는 이런 맥락에서 서술에서 운서, 빈도, 양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2].

허구는 자체적인 시간 질서를 창조한다. 이때 자연적, 역사적 시간은 허구의 시간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허구 질서 안에서 새롭게 재편되기도 한다. 역사적 진실이 소설 속에서 뒤바뀐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공의 시간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리코르의 말에 따르면 ‘잡을 수 없는 자연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시간은 서사라는 방식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된다”[1].

시간의 문제에 주목하여 바라보면, 최근 한국 웹소설에 자주 또 흔히 나타나는 ‘시간 여행’ 혹은 ‘시간 되돌리기’ 서사의 성행이 심상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우리 웹소설에는 소위 ‘회빙환’(회귀, 빙의, 환생을 줄여 이르는 말)의 시간 구조를 지닌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웹소설에는 주인공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간을 여행하여 과거로 돌아가거나, 전혀 다른 시간 시공(異世界)에 진입하는 이야기가 흔하다. 적어도 전체 웹소설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는[3] 이 서사는, 최근에는 그 빈도가 더욱 높아져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이를 ‘장르’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구 자체가 많지 않지만 최근 회빙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은 회빙환 중 ‘회귀’와 ‘환생’이었는데, 이를 ‘모티프’로 호명한 연구가 많았다[3-6]. 안상원은 특히 ‘회귀’ 모티프가 웹소설에서 흔히 목도되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마스터 플롯’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였다[3]. 한편, 음성원과 장용조는 ‘회귀나 환생이 웹소설이라는 형식적 특징(스마트폰 기반 소비행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게 된 마케팅 및 판매수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5].

기존의 회빙환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서사구조가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에 착목하여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모티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점은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모티프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건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의 회빙환을 모티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듯하다. 그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플롯 혹은 ‘스토리의 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최근 회빙환을 ‘장르’의 하나로 간주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는 회빙환이 이미 하나의 심층적 스토리 유형이 돼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덧붙여 회빙환의 유형은 이러한 스토리 유형이 독서집단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감정적 자산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뜻한다.

문제는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이 한국 웹소설에 자주 그리고 흔히 쓰인다는 점일 것이다. 회빙환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속성을 지닌 스토리 유형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후회’, ‘자조(自照)’, ‘반성’ 같은 ‘돌이킴’의 정동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 보겠다는 ‘재건’, ‘자조(自助)’ 등 ‘개선’의 욕망을 함축한다. 기존 연구에서 그것이 소위 ‘시간 플롯’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차원이동 등 공간적 요소에 더 주목하거나 구매 요인 도출 등의 서사 외적 요소에 더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회빙환을 시간의 문제로 접근하면, 시간에 대한 독서집단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 살피기에 용이한 점이 있다. 최근 웹소설 연구가 꾸준히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수용에 관계된 미의식과 그 기반을 밝히는 문화심리학적 연구에는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자반응비평이 비교적 최근에 힘을 얻고 있는 비평 분야일 뿐 아니라, 연구 방법의 진폭이 넓어 연구 범주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서사 생산과 수용에 관계된 미의식 연구는 그 소비량과 소비 패턴을 예측케 하여 문화산업전략을 세우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현대 우리의 문화적 지형을 밝히는 연구라는 점에서 긴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소설이 촉발하는 소비 촉진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 자본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객관적,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독자들이 그 생산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피고자 하므로, 현대 문화심리학과 수용미학의 계보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사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추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회빙환이 쓰인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사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밝히고, 회빙환이

왜 이처럼 많은 비증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로맨스(소위 '현로') 장르의 웹소설인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은 비교적 회빙환이 많이 쓰이지 않는 현로 장르에서 회귀의 플롯을 적용하여 높은 흥행을 이룩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에서 2020년 2월 4일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총 181화로 연재, 완결되었는데, 로맨스 장르임에도 복수담이 메인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맨스가 메인 스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현로 장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연재 당시 로판(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재혼황후』를 제치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하여 대중성을 증명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울러 2021년 11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웹툰으로 트랜스미디어 되어 연재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동명의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어서 시의성도 두루 갖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일루즈(Eva Illouz)와 젠킨스(Henry Jenkin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문화심리학 이론들, 취향, 행복, 공감, 동화 등에 관한 정동의 이론들을 참고한다[7,8]. 연구의 전체적 틀은 수용이론에 기반하되, 분석에 있어서는 구조주의 분석이론 및 최근 서사학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9].

특히 논의의 기반이 될 시간 개념과 시간 플롯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사와 시간

서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사건의 질서를 재구성하게 된다. 서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질서를 만들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린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장면이 것처럼 편집된 이유와 맥락도 알게 된다. 가령, 한 여성과 남성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남성의 시선에서 회상하여 재현하는 서사라면, 남성이 회상하는 동기가 서사를 추동한 원동력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수씨(souci), 곧 '마음쓰'의 문제이며, 리콰르는 이런 관점에서 서사에서 시간이 이해와 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서술하는 시간이 인물이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시간 예술이다. 소설에서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층위의 시간이 나타난다.

- 1) 작가의 시간, 작가가 작품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
- 2) 이야기된 시간(스토리 시간), 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 3) 이야기하는 시간(서술 시간), 서술자가 서술하는 시간
- 4) 독자의 시간, 독자가 작품을 읽는 시간

〈난쏘공〉의 예를 들자면, 작가의 시간 곧 작가가 작품을 쓰고 발표한 시간은 조세희가 연작소설을 발표한 1976년에서 1978년 사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야기된 시간은 김영수, 김영호 형제와 동생 김영희, 난장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고 쫓겨나는 1970년대 어느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야기된 시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소설의 경우,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야기된 시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독자의 시간은 독자가 작품을 읽는 시간으로 언뜻 명료한 시간 같지만, 작가가 작품을 발표할 당시 작품을 읽은 독자와 오늘날 읽은 독자 사이에 시간과 인식의 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시간 플롯의 여러 가지

타임루프, 타임슬립, 타임워프, 타임리프는 모두 시간이 되돌릴 수 있다는 사고가 만들어낸 가공의 시간 개념 이면서, 서술의 전개가 가공된 시간과 결부되어 있어 일종의 플롯을 형성하므로 일종의 시간 플롯으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이다. 흔히 쓰이지만 학술적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은 용어들이어서 개념화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타임루프(Time loop)가 있다. 루프는 올라미나 동그라미 모양의 고리라는 뜻으로, 타임루프는 시간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인공이 특정 시간대에 갇혀서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구조인데, 〈이프노리〉, 〈옛지 오브 투모로우〉, 〈해피데쓰데이〉, 〈소스 코드〉 등이 지니고 있는 스토리 유형이다. 이들 영화에서 인물은 반복되는 시간 경험을 통해 경험치를 쌓아 시간 그 자체를 벗어나거나 미션을 해결한다. 이처럼 시간이 고리처럼 돌고 도는 유형의 시간 플롯을 타임루프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타임슬립(Time slip)인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우연하게 시간 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가(slip) 벌여지는 시간여행을 뜻한다. 영화의 사례를 들면 〈백 투 더

퓨처) 〈미드나잇 인 파리〉가 대표적인데, 영화 속 주인공은 우연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임슬립의 플롯을 활용한 경우 현재의 문제를 안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로잡는 과정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꼭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스타트렉〉처럼 미래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미래에서 현재로 급작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이세계(異世界)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우연하게 어느 시간 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가 벌어지는 시간여행을 타임슬립이라고 부른다.

타임리프(Time leap)에서 ‘leap’는 ‘뛰어오르다’라는 의미로 주인공이 원하는 과거나 미래로 뛰어 이동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인공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타임머신 같은 기계가 있어서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저 시간 속에 던져지는 타임슬립과는 차이가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영화인 〈어바웃타임〉,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타임리프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나 도구가 나오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

타임워프(Time Warp)에서 ‘warp’란 ‘휘게 만들다, 뒤틀리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타임워프는 ‘시간 왜곡’이라는 뜻으로,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에 뒤섞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뜻한다. 이 플롯이 다른 시간 플롯들과 지닌 큰 차이점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프릭퀸시〉, 〈시간 이탈자〉, 〈동감〉, 〈시월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타임워프의 경우,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는 설정이 이야기의 주된 갈등을 이룬다.

1.3 회귀, 빙의, 환생의 플롯

한국 웹소설에서는 시간 플롯이 다른 방식으로 호명된다. 그것은 시간 구조 중심이 아니라, 주인공이 시간 속에 던져진 방식에 따라 구분되어 명명된다.

먼저, ‘회귀’는 주인공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인공이 타임리프처럼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지닌 경우는 많지 않다. 우연히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과거의 어느 시간 속으로 타임슬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시간으로 되돌아온 이유를 깨닫는 것이 갈등을 추동하는 원인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귀를 정당한

가장 큰 이유는 ‘후회’인데[3], 암담한 현실에 심하게 좌절하거나 죽음 직전이나 죽는 상황에서 회귀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잘 드러난다. 주인공은 대체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후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복수를 꿈꾸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과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인공은 홀로 회귀하지만, 여러 명이 현재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동시에 회귀하는 경우도 있다. 회귀는 아래 제시될 빙의나 환생과 비교하여 가장 시간의 요소가 강조된 스토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빙의’는 주인공의 정신이 타인의 몸에 깃드는 것을 말한다. 빙의는 대체로 인물이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과거의 인물로 빙의되는 경우도 있고, 차원이 다른 세계나 창작물 속의 인물에 빙의되는 경우도 있다. 빙의되는 인물은 주인공이 그 사람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빙의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가령,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주인공 윤현우가 자신이 수행원으로 모시고 있기에 잘 아는 진짜 일가의 막내 손자 진도준에 빙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빙의 역시 회귀와 마찬가지로 타임슬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소위 ‘책빙의물’이나 이세계 빙의물의 경우, 공간에 의해 시간이 조율되는 특성이 있기도 하다.

환생은 주인공이 죽음을 경험하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말한다. 환생의 유형에서는 보통 세계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 무협 세계로 이동하거나, 판타지 세계에서 현실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다. 죽음을 경험한 주인공은 원래의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지녔던 경우가 많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환생하였기에 더욱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다. 주인공은 새로 태어났으므로 성장과 시련, 단련과 완성의 과정을 거친다. 다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환생한 인물은 기존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된다. 그러나 주인공이 이전 생의 기억과 능력을 지닌 채 환생하므로, 어린 시절은 대체로 간략히 서술되고 성장 이후가 상세히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귀, 빙의, 환생의 스토리 유형은 위와 같이 구분될 수 있지만, 간혹 빙의인지 환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에서 예를 든 『재벌집 막내아들』의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진도준의 아주 어린 시절로 빙의할 뿐 아니라 빙의된 인물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 없어 환생과 다름없어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간략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oncept comparison of Hoi-Bing-Hwan

Spec.	Return-to-the-past	One's soul-turned-upside	Reincarnation
time	mainly past	past present different time	mainly different time
world	of real logic	of real logic of fantastic logic	of fantastic logic

2. 『내 남편과 결혼해 줘』의 구조분석

2.1 복수담과 회복담의 결합구조

『내 남편과 결혼해 줘』는 타임슬립으로 시간을 되돌아간 주인공이 인생을 바꾸는 판타지 소설이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로맨스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판타지임에도 ‘로판(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아니라, ‘현로(현실 로맨스)’ 장르에서 연재되었다. 웹소설에서는 현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소설은 소위 ‘현로’로, 서구 중세 배경의 로맨스나 이세계 로맨스는 ‘로판’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의 일생 중 일정 시점으로 회귀하는 타임슬립의 플롯을 지닌 판타지 작품이지만, 배경이 현실이므로 현로 장르로 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 작품의 소개글을 인용한 것이다.

"좀 봐주라, 응?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넌 어차피 죽을 거잖아, 흑..."

시한부를 선고받은 내 앞에서, 하나뿐인 친구가 애처롭게 울었다.

나는 그 시한부조차 채우지 못하고 남편의 손에 죽었다. 그리고.

"지원 씨, 점심시간 다 끝났어!"

10년 전,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깨어났다.

죽음 이후에 주어진 또 한 번의 삶.

운명을 바꾸려면 내 시궁창 같은 운명에 누군가 대신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 '누군가'를 내 친구로 정했다.

너, 내 남편 원했잖아.

이 소설은 주인공 강지원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서 시한부마저 못 채우고 서른일곱에 남편 손에 죽은 뼈아픈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회귀하여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인생 2회차를 그린다. 먼저 이 작품의 스토리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가능성: 강지원이 남편 박민환의 무능과 시어머니 김자옥의 괴롭힘으로 일만 하다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시한부도 못 채우고 남편 손에 죽는다(죽음과 동시에 10년 전으로 회귀한다).

과 정: 강지원이 자신의 인생을 영망으로 만든 박민환과 정수민에게 복수하는 길은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결혼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그 과정에서 박민환과 정수민은 자멸하고, 시모 김자옥도 죽는다). 강지원이 유지혁과 유희연, 양주란 등 좋은 인연들을 새로 만난다.

결 과: 강지원이 유지혁의 도움으로 친모 배희숙, 정수민 등 이전 삶의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 소설의 스토리를 서사의 심층에서 요약해 본 것이다. 요약에서 드러나듯이, 이 소설은 타임슬립의 서사구조를 활용한 복수담이며, 제2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의 회복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잘못된 결혼의 길목으로 접어들었던 상견례 1주일 전으로 회귀하는데, 이는 박민환과의 결혼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회귀 후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그녀의 변화는 외모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를 낄 뿐 아니라 이전 생애는 꿈도 못 꾸었을 스모키 화장을 하는 등 자신을 가꾸면서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다시 수첩을 꺼낸 지원은 업무 메모가 빼곡하게 적힌 부분을 지나 맨 뒤쪽 여백을 펼쳤다.

이번 생은 절대 바보처럼 살지 말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이야.

.....

행복해지자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자.

.....

2009년, 민환은 주식 몇 가지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2010년에는 지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아예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주식에 몰두했다.

2011년부터는 지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너 때문에

재수 음 붙어서 손대는 것마다 족족 말아먹는다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뭐가 무서워서 혼자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스웠다. (제4화 〈쓰레기는 버리고, 돈은 줌〉에서 인용)

인용에서 드러나듯, 강지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준 인생 2회차의 기회이기에 주식에 미친 남편과 무정자증인 남편에게 아들을 기대하며 머느리를 들볶는 시어머니 같은 과거의 소위 쓰레기 같은 인연들은 폐기 처분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혼자 행복해하겠다고 결심한다. 때문에 이 소설은 로맨스 장르에 들어 있지만, 로맨스보다 복수담과 회복담이 주를 이룬다. 회차의 제목도 ‘쓰레기는 버리고 돈은 줌’(제4화), ‘원수를 강물에 던져라, 시체가 될 것이다’(제36화), ‘폭탄돌리기’(제41화), ‘민환 하늘에 수민 벼락’(제56화 57화), ‘주식에 미친 놈’(제63화), ‘이 구역의 미친 년’(제88화) 등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다.

회복담에서는 강지원이 정수민의 거짓된 우정 대신 진짜 우정, 진짜 동료를 얻는 과정이 그려진다. 로맨스는 회복담의 일환으로 그려지는데, 이번 삶에서는 유지혁과 결혼할 뿐 아니라 건강한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회귀 시 지냈던 이전 삶의 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해진다. 그녀는 이전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회귀 전에 주위들은 정보, 곧 미래에서 가지고 온 지식과 정보로 주식투자를 시작한다.

아울러 이전 삶에서는 지원이 정수민의 의도적인 차단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극적인 관계에 머물렀다면, 회귀한 이후에는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자신에게 씌었던 오해를 풀고 첫사랑 백은호와도 재회하는 등 적극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지원은 이전 삶에서 자신이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소명하고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후회한다. 그리고 자신처럼 궁지에 몰려 퇴사하지 않으면 안 됐던 양주란과 유희연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그녀들과 연대를 형성한다.

이 소설에서 과거로 회귀한 인물은 강지원만이 아닌데, 유지혁도 회귀했음이 밝혀진다. 강지원이 죽자 유지혁도 자살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유지혁 역시 외로운 삶을 살아왔었음이 드러난다. 지원은 기억을 못 했지만 그들은 대학 때 만난 적이 있었고, 유지혁은 캠퍼스에서 그녀가 돌보던 고양이(곰)팡이를 거두어 키우고 있었다. 유지혁이 로맨스 장르의 전형적 남주인공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소설은 로맨스 장르의 일반적인 전개

를 따르기보다는 전면에 부각된 복수담과 회복담으로 인해 소위 ‘막장’ 드라마의 전개를 따른다는 느낌을 준다. 요컨대, 이 소설은 현로 장르에 연재되었으나 로맨스의 일반적 구조를 지닌 작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2 전경화된 복수담과 후경화된 애정담

이 소설은 로맨스 장르로 연재되었지만, 복수담이 전경화된 반면 애정담은 후경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회귀의 스토리 유형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회귀를 추동한 ‘후회’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선’의 욕망이 복수담, 회복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로맨스는 회복담의 일환으로 그려진다. 웹소설이 이른 바 장르 서사임에도 로맨스 장르 안에서 이러한 서사의 흥행이 가능했던 것은, 설득력 있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에피소드마다 소위 ‘사이드’적인 해결 양상을 보여 주어 독자의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개성 있고 설득력 있는 악역들을 들 수 있다. 정수민은 그러한 인물 중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정수민은 ‘수민이네’처럼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하는 유아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졌음에도 잘 계시라고 비아냥거리며 유유히 집을 빠져나가며, 심지어는 시어머니 자옥의 수액에 물을 주사하여 그녀를 살해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편지를 바꿔치기하여 강지원과 백은호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후에도 강지원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 때마다 방해하고 훼방 놓아 강지원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정수민은 강지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데, 강지원과 결혼하기로 한 박민환을 유혹한 것도 박민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강지원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정수민이 강지원을 왜 이처럼 증오하는가는 소설 후반부에 가서야 실체가 밝혀진다. 강지원의 친모와 정수민의 친부가 바람나서 가족을 버리고 딴 살림을 차렸었고, 정수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수민은 자신을 구박하는 엄마 대신 아버지와 살고 싶었지만, 강지원의 친모 배회속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도 강지원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가 그녀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녀를 추동했음이 밝혀진다.

박민환은 허술한 악인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그는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비정규직인 정수민보다 정규직 사원인 강지

원이 훨씬 적절한 상대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전 삶에서는 그의 입에 발린 말에 속았던 강지원이지만, 회귀한 강支원은 박민환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제피에 넘어간 박민환은 정수민과 결혼하게 된다. 박민환은 소용이 다한 정수민을 죽이려고 차 브레이크를 고장낼 정도로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인데, 그 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죽는 결말을 맞는다.

시모인 김자옥도 머느리를 아들의 하녀쯤으로 여겨는 구시대적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강지원이 자신 대신 박민환과 결혼시킨 정수민에 의해 살해당하는 종말을 맞이한다. 이외에 악인으로 그려진 인물로 김경옥이 있다. 그는 강지원이 근무하는 영업2부의 과장으로 강지원의 이전 생애에서는 강지원과 유희연, 양주란의 기획안을 가로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여 출세가도를 달린 인물이었다. 그러나 회귀 이후 지원이 진상을 폭로하기 때문에, 악행이 밝혀져 결국 회사를 쫓겨나게 된다.

이 소설의 악인들은 대체로 현실에서 목도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인물들이다. 정수민은 질시, 박민환은 남성 중심 이기주의, 김자옥은 전형적인 남아선호사상을 지닌 폐악한 시모, 김경옥은 일 안하면서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의 전형 같은 인물들이다. 한편 매력적인 조력자들도 등장한다. 먼저 유지혁의 여동생이자 강지원의 회사 동료인 유희연과 양주란을 들 수 있다.

유희연은 소설 초반에 강지원의 도움을 받은 연후로는 강지원의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소위 ‘사이다적’ 인물로, 털털하고 화끈한 성격이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먹성 또한 대단한 캐릭터로 그려져 있다. 그녀는 강지원의 첫사랑 백은호를 좋아하지만 강지원의 행복을 위한 걸음 물러나 있는 의리 있는 인물이며, 경영에 관심없는 오빠 대신 U&K food를 경영하고 싶은 욕망도 지닌 포부 크고 야심 있는 여성 캐릭터로 그려져 있다.

양주란은 직장인이자 워킹맘인데, 능력 없고 도덕성도 없는 상사 김경옥과 남편 때문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일에 시달려온 불행한 인물이다. 그녀는 강지원의 회귀 전 삶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된 삶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어 죽는다. 강支원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양주란이 어긋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혼할 결심을 하게 돕는다. 지원의 도움으로 양주란은 이혼하고 그녀를 평소 좋아하던 6살 연하의 이대리와 결혼하게 되는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악인들의 악행을 밝혀 인생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놓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로맨

스 장르에 속해 있지만 로맨스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회귀의 스토리 유형이 전면배치된 결과이다.

일정시점으로 회귀하는 인물의 경우, 회귀의 이유가 주어진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회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왜 이제는 보이는가? 이런 맥락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 줘』는 앞에서 좋은 말 늘어놓으며 겉으로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친구, 진짜 동료, 진짜 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비참하고 아주 절박한 순간 죽기 때문에, 인생 회복에 이야기의 초점이 놓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의 소산인데, 이는 일반적인 로맨스 소설의 세계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회귀함에 따라 배경은 소설이 발표된 2019년에서 2009년으로 이동한다. 때문에 서술에 롤리팝 핸드폰이라든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인한 카푸치노 유행, 소녀시대의 히트곡 Gee, 스키니진 유행, 폐지되지 않은 간통죄 같은 여러 가지 복고적 요소들이 등장한다. 최근 종영된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코드가 복고와 응징이었다고 할 때, 스케일은 작지만 이 소설도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맨스라는 장르 소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설정은 판에 박힌 전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악역들과 조력자들, 복고적 요소들이 읽는 재미를 주며, 회귀한 주인공이 사랑에 목숨 거는 인물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인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의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다.

3. 이생망이 만들어낸 회빙환의 유토피아

웹소설에서 회빙환은 이미 범용적 플롯 장치의 하나 되었다. 이용희는 회빙환이 MZ세대 같은 특정 세대들만의 욕망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0]. 회빙환은 오히려 사회에서 오랜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에게 더 크게 어필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웹소설의 독자층을 분석해보면 현대판타지의 경우 30~50대의 구매율이 큰 편이고, 로맨스는 30~40대가 64%에 이른다는 점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최근 회귀 시간이 10~20년에서 50년 등으로 그 시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서의

『마이, 마이 라이프』의 경우 50년 전으로 회귀한다. 이런 맥락에서 회빙환은 지금 여기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스토리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그렇다면 회빙환의 플롯 혹은 스토리 유형이 왜 이처럼 반복되는가. 일단 그것은 독자들의 대리만족과 독자 욕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이 주식을 사셔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의 정동이 이러한 서사를 추동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의 경험과 정보를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되돌려진다면 어떨까? 이는 시차의 문제이므로, 시간이 갈등 해소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후회와 좌절, 분노 등의 감정에 휩싸인 주인공은 회귀를 경험하며 과거로 돌아간다. 바꾸고 싶었던 과거를 직접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었을 뿐 아니라, 미래에서 왔기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교통사고로 잃었던 남편을 구해내고(『반드시 해피엔딩』) 주가가 오를 주식 종목들을 사들일 수 있다(『내 남편과 결혼해 줘』).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난과 실패도 겪지 않는다. 인물이 도덕성이 부족한 남편과 시월드를 응징할 때 독자는 더불어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여겨진다. 현실은 소위 ‘고구마’ 투성이이고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 없지만, 소설 속에서 사이다 전개가 벌어질 때 더불어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주인공이 소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소설 속 인물이 되고(『전지적 독자시점』), 무림의 고수가 능력을 지닌 채 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이의 몸으로 환생하는데(『화산귀환』) 당해낼 방법은 없다.

문학의 존재 이유는 교훈을 주는 데도 있지만 재미와 위안을 주는 데도 목적이 있다.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이 창출하는 주제는 아직까지 재미와 위안을 주는 데 치우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회빙환의 플롯이 교훈과 감동을 더불어 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 회빙환이 스테레오 타입(사형식)이 아니라, 진형형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회빙환은 웹소설이라는 갈래가 만들어 낸 자구적 서술형식 혹은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웹소설은 스낵컬처의 하나로 5-15분의 짧은 시간에 읽혀야 한다는 생존조건을 지닌다. 웹소설은 주로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므로, 짧고 답답한 줄거리는 잘 읽히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독서 시간과 템포를 고려한 서술과 문단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독성을 높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맥락

에서 웹소설 취한 자구책의 일환이다[11].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회빙환의 플롯은 서사와 갈등구조를 일반화, 획일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쉽게 이해되게 만든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에서 주인공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일이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는 작가와 독자가 이미 암묵적 합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빙환이라는 플롯 자체가 인물의 당위성, 개연성을 부여한 결과이다. 때문에 주인공이 맞닥뜨린 상황을 풀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만 초점이 모아지면 된다.

이러한 서사는 특별한 갈등이 없으므로 쉬는 시간이나 휴게시간 혹은 출퇴근 시간 등을 쪼개서 부담 없이 읽기에 적절하다. 우리는 이미 ‘숏폼’ 문화에 익숙하다. 숏폼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지루한 설명은 독자 유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회빙환은 스낵컬처의 하나가 된 웹소설이 독자의 니즈에 맞게 자구적으로 형식을 변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회빙환의 플롯은 현대 사회, 특히 한국인의 정신적 정황과 시대적 욕망의 분출구로 볼 수 있다. 마스터 플롯은 서사를 구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감정적 자산을 보유한 스토리를 말한다[3].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사유할 때 의식적이건 무의적이건 마스터 플롯과 연관시켜 사유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마스터 플롯은 특정한 문화에 관련되어 있을수록 실제적 힘을 크게 행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문화에 스며들어 유행해온 회빙환은 이미 마스터 플롯이 되어가는 스토리 유형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유형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소위 회빙환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먼치킨’의 주인공들이 이를 증명하는 또다른 보기가 된다.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 고구마 없는 사이다만 있었으면 하는 욕망이 주변에 존재했던 회빙환 스토리 유형을 중심으로 부상시켰을 수 있다.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은 독자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판타지 세계에서 어려움 없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독자는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독자의 독서욕망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힘든 하루를 마감하고 누울 때, 위로해주는 노래 한 곡, 소설 한 편은 뒤숭숭한 머릿속을 비우는 현실도피적 체험이면서, 다음날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용희는 “계층 상승의 마지막 열차라며

암호화폐에 ‘영끌’한 2021년 한국 사회 청년들의 갈망을 웹소설은 예민하게 포착한다. ‘노오오오력’해도 ‘이번 생은 망했다’는 20~30대의 절망은 게임처럼 인생도 ‘리셋’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웹소설에 투영된다”고 주장한다 [10]. “웹소설에 자주 사용되는 ‘나 혼자만~’ ‘○○○로 사는 법’ 같은 제목도 좀처럼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잊고 ‘나 혼자 폼나게 사는 법’을 꿈꾸는 이들의 마음이 포개진다” [10] 이런 맥락에서 회빙환의 세계관이 한국 사회의 거울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회빙환이 본질적으로 ‘후회’, ‘자조(自照)’, ‘반성’ 같은 ‘돌이킴’의 정동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 보겠다는 ‘재건’, ‘자조(自助)’ 등 ‘개선’의 욕망을 함축한 시간적 속성을 지닌 스토리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재 한국 웹소설에서는 회빙환이 일종의 ‘장르’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의 마스터 플롯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스토리 유형이 아니라 모티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중심으로 회빙환 중 하나인 회귀의 시간 플롯이 소위 현실로맨스 장르에 적용되어 작품을 새롭게 한 요인이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웹소설에서 회빙환의 스토리 유형이 지닌 의미를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회빙환은 독자들의 대리만족과 욕망을 반영하는 양식이다. 둘째, 회빙환은 독자들의 쉽고 빠른 몰입을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토리 유형이자 현대에는 마스터 플롯이 돼가는 양식이다. 셋째, 회빙환은 현대 한국인의 정신적 정황과 시대적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하는 양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가 약 1조 930억 원으로 2020년 6400억 원 대비 62% 성장했다고 밝혔다. 2003년에 시작된 웹툰 산업 규모가 2010년에 1조를 돌파한 것을 감안할 때, 웹툰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재벌집 막내아들』, 『열녀 박씨 계약 결혼년』 등 회빙환의 서사구조를 지닌 웹소설 원작 드라마들이 안방극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미현은 회빙환 인기 요인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의 시대적 상실감이 찾아낸 소설 속 도피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빙환

을 그렇게 부정적,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이 하나의 플롯 혹은 스토리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스토리의 유형은 담기는 내용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된다. 똑같이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현실을 헤쳐나가는 방식과 인물의 신념에 따라 새로운 서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예시를 든 『내 남편과 결혼해 줘』의 경우, 회귀를 바탕으로 로맨스의 문법을 흔들어 새로운 서사를 창출해 냈다.

회빙환이 성공의 공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은 결혼에 만족스럽지 않고 시월드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의 서사를 보여주었기에 많은 독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었다.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터 플롯이 되어 가는 스토리 유형이자 시간 플롯인 회빙환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빙환은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아직까지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고 있는 진행형의 양식이다.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변모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Éditions du Seuil, 1985.
- [2] Gérard Genette, *Discours du récit*, Depuis la publication, 1972.
- [3] S. W. Ahn, “A Study on the master plot of Korean Genre Novels - Dimensional movements as a variation of the adventure narratives”, *Korean Lang. & Lit.* no.184, 2018, pp.163-186.
DOI: <https://doi.org/10.31889/kl.2018.09.184.163>
- [4] S. W. Ahn,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egression motifs in Korean web novels”,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22, no.3, 2018, pp. 279-307.
DOI: <https://doi.org/10.20461/KLTC.2018.9.80.279>
- [5] S. W. Eum & W. J. Chang, “A Study on the Use of Return-to-the-past or Reincarnation Motifs in Web Novels: Based on Chris Vogler’s Narrative Structure”, *Research Creative Contents* no.25, 2022, pp. 39-72.
DOI: <https://doi.org/10.34227/tiocc.2022..25.39>
- [6] M. H. Kim, “Desire code of ‘regression and reincarnation’ in the web novel-Focusing on Causal Layered Analysis”, *Study of Future* Vol.4 No.2, 2019, pp. 155-185.
- [7] E. Illouz, *Cold Intimacies :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Dolbegae, 2010.

- [8] H. Jenkins, *Conversions Culture*, Vizandbi, 2008.
- [9] H. Porter Abbott, *Introduction to Narra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10] Y. H. Lee, "How to live in a circular world",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2056.html> (accessed Dec. 29, 2023)
- [11] K. A.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b Novel Read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7, pp. 551-55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7.551>

김 경 애(Kyung-Ae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국어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리터러시 교육